

45 文岩集：漆室空談 문암집: 칠실공담

연도불명 / 정지성(丁志成) / 52면 / 12,10-24 정37문

‘漆室空談(칠실공담)’은 정지성(丁志成)의 문집, 즉 『文岩集(문암집)』에서 유래한다. 정지성(1718~1801)은 경북 영주사람으로 고향에서 벼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독특한 개성의 실학으로 일생을 마친 숨은 실학자였다. 그의 유저인 『文岩集(3권 1책, 목판본)』은 비록 작은 책자이기는 하나 우리 실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역사의 재조명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선구적 업적이 학계에 소개된 일이 거의 없다. 정지성의 사회개혁 사상도 그의 문집에 담겨 있는 ‘漆室空談’에 잘 응축되어 있다. 칠실공담은 단순한 관념론적 개혁사상이 아니고 조선왕조 후기사회(18세기 말)의 갖가지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두 차원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안들이다.

체제는 주인과 나그네의 문답식으로 매우 참신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지성의 개혁사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20여 가지에 달한다. 과거제도의 개선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의 고향 영주가 속해 있는 낙동강 상류지방의 국토보전론이라 할 수 있다.

주인이 크게 탄식하기를 “... 백성들로 하여금 생존할 방도가 없어 예의를 차릴 겨를조차 없게 하는 것은 곧 시내에 흘러내리는 모래 때문이다... 우리 영남지방은 이 폐단이 더욱 심하다. 태백산, 소백산, 조령, 죽령이 남쪽을 둘러싸고... 강변에는 모래가 날로 쌓여 금년에 한 척이 높아지고, 명년에 또 한 자가 높아지면 10년이 못 가서 토지가 모두 백사장이 될 터인데... 이것이 영남의 제일 큰 환난이 아니겠는가?”

객(客)이 묻기를 “영남의 전토에 토사가 쌓이는 것은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다. 만약 이를 예방할 방도를 세운다면 어떻게 구상하겠는가?”

주인이 답하기를 “나는 먼저 수원(水源)을 살펴보고...” 하면서 해결책을 진술한다.

위와 같이 본문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보면 자연(물줄기와 산줄기 등), 즉 지리를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의 대책이 언급되고 있다. 정지성 선생은 이렇듯 오늘날의 관점에서 말하면 국토보존론의 일단을 피력한 것이지만 주자학이 지배하던 당대에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참고로 이 자료는 필자가 잘 아는 대구의 장서가인 이인재(李仁哉) 선생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 선생은 소장한 고서 4만여 권을 영남대학에 인계했다.

